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환의 이행·보건의료인력 공공의료확충! 산별교섭 정상화·제도화!

투쟁속보

파업5일차

2023년 7월 17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송은옥

고대의료원은 세상에 없는 ‘미래병원’을 위해 우리는 세상에 없는 ‘일할 맛 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고대의료원이 2028년,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미래병원’ 구현을 천명했다.**

고대의료원이 ▲브랜드 가치 강화 ▲격차 연구 중심 의료기관제시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을 진료 공간 이상의 첨단 혁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의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 지향할 계획이라고 한다.

안암병원도 이에 발맞춰 수년간 진행된 대규모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메디컴플렉스를 완성해 스마트병원 구현도 본격화한다.

구로병원은 지난해 9월 미래관을 오픈하며 중증질환 특화 병원으로의 시스템 재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안산병원 역시 3단계 ‘마스터플랜’ 공사가 한창이다. 미래의학관 3개 층 증축과 지하주차장 3개 층 신설의 단기 마스터플랜 공사가 순항 중이다.

**의료원의 수익 성적표는 1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성적표는 꼴등!**

의료원의 작년 한 해 성적표는 의료수익 1조 4천억 원,

고유사업목적적립금 1934억 원, 경상이익 1590억 원. 하지만 지난 10년간(13년~22년) 고대의료원 평균 임금 인상률은 2.72%에 그쳤다. 또한 2018년 1조 클럽을 돌파한 뒤로는 계속해서 높은 수익을 남기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익을 대부분 건물, 시설, 장비에 쏟아붓는 데 인력충원과 임금인상은 배제될 수 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심화되었다. 고대의료원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진료과를 포함한 전 직원의 노력이 있었지만 의료원은 기간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허울 뿐인 1등급 간호인력과 보조인력 부재, 검사파트의 적정 인력부족, 정·명퇴 사직 자리 미충원, 시설증축에 따른 인력 미충원,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주 6일 근무는 물론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연장근로시간, 계획적인 연차 사용이 아닌 ‘연차사용 촉진’을 이유로 떠밀려 사용하게 되는 연차휴가.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 쓰기조차 눈치 보이는 생리휴가.

이것이 바로 BIG6, 1조 클럽, 세계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을 표방하며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을 외치는 고대의료원의 처참한 민낯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대의료원 발전을 위해 희생해 왔다. 이제 더 이상 희생하라는 말로는 안된다. 그동안 일한 만큼 받지 못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인력충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내 1위 연구중심 의료기관 도약 노동환경 개선, 직원 투자

의료원은 ‘초격차 연구 중심 의료기관’을 제시하고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을 진료 공간 이상의 첨단 혁신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새로운 모델의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 지향할 계획을 발표 한 바 있다.

고대의료원만이 창출할 수 있는 가치와 역할에 집중하고, 내실을 다져나가겠다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개선 및 직원에 대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환자 보호자들에게 시설과 첨단장비는 대형병원 이 가져야 할 기본요건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고대의료원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외형적 발전을 이룬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병원 인력의 질적향상을 위한 인력충원과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때이다. 각 과의 중증비율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의료원의 방향성에 맞게 직원에 투자하여 중증질환을 대비하고 환자안전과 숙련도를 높이는 방식, 현장을 중심으로 행정영도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고대의료원의 발전 방향과 그에 따른 투자계획을 논의할 때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고 이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하는 것이 의료원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고대의료원은 2018년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상이 누린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10대 과제를 선언했다. 교직원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고대의료원이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병원으로 대내외에서 인정받는 날이 하루 빨리 올 것이다.

또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온갖 제언을 한들 그것이 고대의료원 모든 조직의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전혀 의미 없는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 고대의료원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전진해야 한다.

● 각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으로 고생한 조합원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전년도 수익에 맞는 노동소득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 각 부서에 적절한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배치해 중증질환을 대비하고 환자 안전과 숙련도를 높여가야 한다

●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노동과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야 한다

● 현장을 중심으로 행정시스템과 체계가 재편되어야 한다

총파업의 빗줄기 속으로!

7월 13일부터 시작된 총파업은 5일이 지난 현재 진행중입니다. 13일과 14일은 우리의 분노를 하늘이 대신해 주는 듯 거센 빗줄기가 하루종일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하늘이 맑디 맑은 여름 하늘을 보여줄 때까지 투쟁합시다!

